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그림책

「곰 사냥을 떠나자 We're Going On a Bear Hunt」

헬렌 옥센버리 그림 | 마이클 로젠 글 | 공경희 역 | 시공사 출판

📍 현문재(상균관대 이동형소년학과 교수)

헬렌 옥센버리의 「곰 사냥을 떠나자」는 그림책 읽기가 공감각적 사고, 감정 이입,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이 책의 앞표지를 향해 뒤표지를 펼쳐 보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림책 연구자들이 발견한, 부모와 자녀의 그림책 읽기가 제공하는 교육적 유익은 이 책에서 소개된 생각의 도구와 일치합니다. 공감각적 사고는 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보면서 유아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유아는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감촉을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아들은 그림책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고 긴장하고 슬퍼하는 감정 이입을 경험하며 때로는 등장인물의 동작을 흉내 내면서 그 상태와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 읽기 행동이 보여주는 특성은 결과

구드벤 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생각의 도구를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식인인 이이령 선생님은 이 책을 21세기 한국을 창조해 나갈 미래 인재들에게 쥐어 줄 '보물지도'라고 극찬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수많은 강의에서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그 학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통합」에서 저자는 “통합적 이해는 감각적 인상과 느낌, 지식과 기억이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통합적 이해의 정의를 내린 후 “생각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감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성이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 시인들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을 종합하여 사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파인먼과 같은 수학자는 글자들에서 다양한 색을 보았으며 칸딘스키에게 색채는 소리와 운동 감각적 느낌, 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색의 맛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조지아 오키프(버어올린 연주자), 글을 쓰면서 음악을 느꼈던 해럴드 핀터(극작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색을 지각했다는 데이비드 호크리(화가), 어떤 사물을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만졌을 때 색을 보았던 캐럴 Z. 스티(화가) 등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각교차현상의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만이 공감각이 가 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의 눈치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공감각적 사고가 필요하며 훌륭한 교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과정이 우선시 되며 몰입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놀이의 특성에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감정 이입 현상은 「생각의 탄생」에 소개되는 8번째 생각도구로, 놀이는 11번째 생각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헬렌 옥센버리의 「곰 사냥을 떠나자」는 그림책 읽기가 공감각적 사고, 감정 이입,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이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펼쳐 보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 소년이 앞장을 서고 있으며, 그 뒤에는 아기를 뒤통에 안아고, 그다음엔 어린 소녀, 그 뒤엔 엄마같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성, 그리고 마지막은 목과 입 부분에 흰 털이 있는 짐은 사냥개가 차례로 걸어옵니다. 그러나 두 어린 소년 소녀의 한 발은 땅에, 그리고 다른 발은 공중에 들려있어 그들의 행동은 걷는다기보다는 가볍게 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곰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한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면지에는 낮은 물결과 모래톱의 바닷가 아침 풍경이 그려져 있고, 표지 안쪽에는 길표지에 있었던 그 가족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첫 페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풀밭 속을 걸어가는 가족을 보게 됩니다.

곰 잡으러 간단다.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리 하나도 안 무서워.

아라! 풀밭이 짙어!
넘실대는 기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